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글로벌 건축디자인

허승희 (Stephan S. Huh)

서론

안녕하십니까?

PDI World Group 을 창업하여 그 회장직을 맡고있는 허승희 (Stephan S.Huh) 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Global Building Industry network” 라는 vision 아래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모든 건설관련 회사들을 한데 묶어 국제적 네트워크를 실현하여 국제 건축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꾸준히 바뀌고 있고 요사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의 첨단 기술 개발과 이에 맞물려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글로벌 (Global)화 까지 되어가고 있으니 그 변화 속도와 그 변화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형태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주거 설계도 이에 맞추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일반 주거의 경우,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재래식 부엌이 현대식 부엌으로 바뀐 것이 아마 40년이 채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발표하실 분들중에 한국 주거의 변천사와 미국, 일본 등 각 나라의 주거 변천과정에 대해 비교 분석한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으리라 믿고, 저는 설계자로서 그간 참여 했던,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거양식의 변화에 따른 설계 방향의 변화를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건축 설계란 우리 고객의 꿈을 현실화 시켜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자들은 프로 정신에 입각하여 고객을 이끌어 나가고 공익을 염두에 두고 건축법을 준수하며 좀 더 바람직한 “인간창조환경 (Built Environment)”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그들의 임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DI 의 mission 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인간창조환경 (Built Environment) 의 설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공헌하고 가장 기능적이고, 편리하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이며 최상 (High Quality) 의 디자인과 서비스를 우리 고객에게 제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창조환경 (Built Environment)이란 오늘날의 편리한 생활 기능을 갖춘 주거와 이에 관련된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공헌이란 이 주거가 세워지는 곳의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과 잘 조화되고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인간창조환경 (built environment)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조사 (Research)

우리 설계자들은 늘 연구하고, 열심히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객의 자문 (Advisor)가으로써 고객을 이끌려면(lead)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거 형태는 무엇이고 어떤 자재가 현재 사용되고, 어떤 자재가 최근 개발되었고, 또한 신공법은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고 등등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기계 system 과 기구가 있고, 무슨 주방 기기가 있으며, 전등(light fixture)과 hardware 는 무엇을 써야 하고, 이들의 특성, 가격, 기능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어야, 기능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주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창조 (Creation)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주거 공간, 생활,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아마 요사이는 글로벌화된 공간의 창조이며 이를 건축가가 만들어 고객에게 잘 설명하고 모든 Communication (스케치와 모델등)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이해시켜 만족스러운 설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주거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후, 주거의 외관 (Exterior) 변천 관련 이야기, 주거 기능 중 매우 중요한 보안 시스템(Protection System), 즉 자연으로부터 보호와 침입자로부터의 보호 관련 시설에 관련하여 말씀드린 후, 주거 내부 Interior 설계 변천 관련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우리의 미래 주거가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본 후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주거 (Residence in general)

우선 주거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자고 자연으로부터 또한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사색하고, 공부하고, 즐기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기본적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건축기술과 자재 개발의 글로벌화 덕분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주거 설계에 있어 천재지변을 빼고는 거의 다 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comfortable)한 주거를 창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후세를 위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le)에 기초한 에너지 절약과 자원(resource)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관 (Exterior)

주거의 외형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주거를 설계할까 또한 각자의 취향에 따라 그 형태도 한식이나, 서양식이나 구분되고 서양식도 classic 이나, Neo-classic 이나, Mediterranean 이나, Prairie style 이나, 아니면 Modern 이나, Post colonial 이나, Ultra modern 이나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재료도 목재, 석재, concrete, metal, 벽돌, 유리 등등 다양하고 색깔도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층수 역시 단층에서 초고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글로벌화에 기인하였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초고층 주거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고 sustainable 한 주거 해결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채의 단독 주택이 깔려 있는 것보다는 한동으로 짓고 나머지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보안 (Security)

그럼 우리가 늘 걱정하고 사는 절도자, 강도로 부터의 보호 방법과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글로벌화에 힘입어 빨리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High tech)를 기초로 한 Security system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고 이 시스템을 무능화 시키려는 자들의 기술도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상 고려할 사항은 이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눈에 띄지 않게 (invisible system) 설치되어야 하고 거주자에게 시각적 걸림돌이 되거나 이 시스템이 오히려 피해를 가져다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화재 시나 기타 비상시에 쉽게 대피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Energy)

에너지는 글로벌화에 힘입어 매우 편리해지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준 공로자라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냉방, 온방 시스템은 우리 주거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너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요사이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요. 1973 년 미국에 있었던 에너지 파동때 일입니다. 미국인들이 에너지 절약을 외치며 각종 idea 를 생각해 냈고, 이를 잘못 실행에 옮겨 sick building syndrome 을 만들었으며 주택도 모든 창문을 바람하나 못들어오게 막고 살다가 산소 부족으로 furnace heater 의 pilot light 마저 꺼지는 일이 생겼고, 유럽에서는 요즘 저녁에는 모든 창에 보온용 셔터를 내려서 보온효과와 더불어 security protection system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은 이러한 셔터가 화재시와 비상시에 거주자 대피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몇년전 제가 중국 내몽고에 프로젝트 때문에 간일이 있었는데 그곳 전통마을은 모든집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짓고 진흙으로 온통 마을을 덮어 커다란 흙언덕처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흙 언덕마을로 들어갈수 있는 입구는 몇개 안되었고 흙 언덕마을의 자연채광을 위한 inner court yard 를 두었다 하며 자연으로부터의 보호와 외부 침입자로부터 쉽게 막을수 있는 그들 나뭇대로의 보호 장치를 하고 사는 것을보고 매우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기후, 몰아치는 강풍과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쉽게 할수 있는, 조금은 원시적이거나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마을들이 마구잡이로 헐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도 주거양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거들이 들어서고 지어지는 과정이겠지요.

요사이 주거 외부 설계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에너지 절약 방안과 sustainable 에 입각한 idea 중 roof garden 설치와 빗물 수거 및 재활용을 고려해야

되며, Energy 절약을 위하여 태양열 관련 active 또는 passive solar system 을 사용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남향에 큰 창을 두고 통풍이 되도록 (고층건물포함) 설계하여야 건강하고 sustainable 한 설계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거 건축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거 실내 설계 (Interior)

글로벌화에 따른 주거 실내설계의 변화도 매우 대단합니다. 우선 기능면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침실 (master bed room) 에 딸린 욕실의 크기가 커지고 있고, whirl pool 욕조와 샤워실, 두개의 sink 가 있어야 고급집으로 팔리고 이 욕실이 통유리 등의 큰 창을 통해 밝고 전망이 좋을수록 주부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겠지요.

또 한가지 부부침실(master bedroom)의 size 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 딸린 부속실인 욕실에서 요사이는 silting room, sauna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서재, fitness 공간, 온실, audio/video room, computer room, office 등등 많은 실들이 부부침실에 딸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생활방식과 고객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글로벌화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이 바뀌면 한국의 주거도 금방 따라 갑니다.

부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엌이 집안으로 들어 오고서도 최근 15년전 까지만해도 냄새때문에 거실과 식당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그 크기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베트남에서는 우리의 과거처럼 부엌에 붙은 식모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엌이 음식을 만드는사람(남편포함) 또는 부인의 공간에서 가족의 공간으로,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엌이 커야하고 island counter 와 냉장고, oven, cook top, TV work table 등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고급주택으로 인정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도 요사이 서양식 부엌으로 바뀌어 가고있는 듯 싶습니다.

중국 대련의 최고 갑부중 한분의 pent house 설계를 하면서 부엌의 위치와 size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밥을 먹는일이 거의 없고 부인은 절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겠지요. 훗날 집을 팔때 필요하니 어느정도 구색을 맞추어 놓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보면, 미국에서는 80년대 까지만해도 매우 유행했던 living room 과 family room 이 요사이에 이들을 통합하여 great room 을 두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왜냐하면 living room 의 사용빈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고급 주거 (아파트 포함)에 반드시 따라왔던 정통 좌식인 안방이 사라져 가고 있는것도 용도의 변화 및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그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거에 붙은 가족을 위한 오락 (recreation) 관련실도 실내 탁구, 당구, 수영장, sauna, fitness room 등등 넓고 많을수록 선호하던 시대에서 점점 간소하고,

가장 하이테크한 실로 audio visual room, computer room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TV도 각종 video game 까지 할수있게 발전되어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의 Computer 사용이 시간이 늘어나고 Computer의 Multi Media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Computer는 각 방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Hotel-Condo/Shared Ownership

요사이 유행처럼 지어지고 있는 hotel 식 condo 또 hotel 식 residence는 최고급 호텔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고 이 경우 욕실 벽과 침실 door가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부엌도 작고 생활공간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원하는 생활 pattern이 hotel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이 경우 한 가족이 소유하는 경우 보다는 2~6 가족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주거 형태

그럼 10년, 20년 아니 50년 후의 주거는 어떻게 변화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물론 글로벌화의 세계적 확산이 기대되고, 서구화된 양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리의 고유 전통양식을 살린 주거 형태도 지속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주택이 특히 아파트가 대량생산형(자동차처럼)에서 특수 주문형으로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만의 생활 pattern에 맞추어 집을 짓고지 할것이고,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trend는 인간이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다양해 지고 늘 바뀌어 가며, 이에 따라 살고싶은 본성때문에 미래의 주거는 button 하나를 눌러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방의 크기는 물론 그 용도도 바꿀수 있는 기계식 변화형 주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침실이 거실의 일부가 되었다가 또 바뀌어 파티실(party room)이 되고, 오락실 등등으로 바꿀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내공간이 바로 실외공간으로 바뀌는 주거는 현재에도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형이 가능해 질 것이고 좀더 친환경적이고 sustainable한 주거가 될것입니다.

주거의 외형도 고객의 취향대로 각종 자유형으로 지을수 있고, 주거의 일부는 자동 변형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물론 건축가도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주거 창출을 위하여 준비하고 능력을 갖추어 가느라 분주해 질 것이고 많은 특수전문분야의 consultant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Global 차원에서 볼때 주거 위치의 환경에 따라 아니면 고객의 문화의 차이, 취향의 차이에 따른 주거 양식이 다를수는 있겠으나 사는 방식이 global화 해가고 건축자재와 기술이 거의 같아져 가기에 많은 분야, 특히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의 경우 세계가 점점 비슷해 져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PDI는 미국, 한국, 중국, Vietnam, 오스트레일리아, 카타르, 아브다비 등등에 많은 주거를 설계하고 있어 global 주거의 변화를 현장에서 보고 있어 오늘의 주제인

global 주거설계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답해드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